순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본격화

운영 예산 40억 투입…필수의료지원 재단 설립 추진
소아 전용 응급실 운영·아이 병원돌봄 서비스 확대도

순천시가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순천형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3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역 의료체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필수의료지원재단을 올해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필수의료지원재단은 필수·응급의료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 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재단 운영 예산은 연간 40억원으로 이 중 30억원은 시 출연금으로, 10억원은 기부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재단 설립을 위해 전남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까지 관련 조례 및 정관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재단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필수의료 공급체계 구축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올해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연구 용역을 통해 순천권 필수의료 공급체계 및 공급기관 역량을 분석하고 필수의료 유지를 위한 재원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순천형 소아응급 의료체계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야간과 휴일에도 안정적인 소아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3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하루 평균 평일 54명, 휴일·공휴일 236명으로 총 5만1294명이 이용했다.

이용자 중 67%가 순천 시민이며, 여수와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서도 33%가 방문하는 등 지역 간 의료협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는 2025년부터 기존 평일에만 제공되던 '아픈아이 병원돌봄 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 운영한다. 전남에서 최초로 2023년 도입한 이 서비스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의 입원 아동에게 전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이 병원에 방문해 어린이의 식사, 복약 등을 돕는 1대 1 서비스로, 양육 공백을 해결하고, 부모의 부담을 덜어준다.

올해 하반기에는 24시간 상시 진료가 가능한 소아응급실도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증도 환아 전문 진료 협진 체계 및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밖에 고위험 신생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큐베이터 및 인공호흡기를 갖춘 전용 구급차를 도입해 지역 내 아동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의 안전한 이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노관규 시장은 "지역 내 의료자원을 적극 활용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 분야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정기명 여수시장이 최근 여수제일병원을 찾아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

정기명 시장, 여수제일병원 의료진 격려

"의료계 혼란 속 시민 생명·건강 위한 노력 감사"

여수시는 최근 정기명 시장이 여수제일병원을 찾아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현장 의료진을 격려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시장의 이번 방문은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계 혼란 속 환자 수와 응급실 이용률 급증에 따른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살피고 의료진과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시장은 병원장과 이사장, 간호부장 등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 야간 응급실 이용 시 환자들의 안전을 위한 병원 인근 보안등 설치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정 시장은 "그간 의료대란과 공보의 감소까지 가중되는 어려움 속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힘써주시고 지역거점 병원으로 지역 의료 강화에 앞장서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고병원성 AI 하천 방역 '온힘' 구복규 화순군수가 최근 야생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을 위한 하천 방역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순군

광양, 철강·이차전지 산업 위기 대응

지역 국회의원·전남도·순천시 등과 현안·지원 방안 등 모색

광양시가 철강·이차전지 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업에 나섰다.

23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방문해 권향엽 국회의원과 면담을 갖고, 철강·이차전지 산업의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에는 이화엽 미래산업국장, 정해종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광양시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철강·이차전지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3개 도시(포항·광양·당진)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국회토론회 제안,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지정, 광양 스마트 그린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지원, 대미 수출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 유입 방지 및 시장 보호 대책 추진, 산업용 전기요금 할인 및 별도 요금체계 신설, 해외 광물 개발 지원 확대 및 정책적 뒷받침 요청 등이다.

권향엽 의원은 "철강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단순한 통상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우리나라의 프리미엄 철강이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낙관론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대응이 미흡할 경우 철강 기업의 해외 이전은 물론, 도시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광양시는 오는 27일 전남도, 순천시와 함께 '전남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를 공동 출범하고, 전남도·광양시·순천시의회, 유관기관, 기업체와 협력해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자문, 정부 정책 반영 건의, 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함평 '나비어울림센터' 본격 운영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나비어울림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23일 함평군에 따르면 나비어울림센터는 주민 거점시설로 1층에 청소년문화발전소, 2층 도시재생지원센터, 3층 청년 창업지원센터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크게 증진할 것으로 보인다.

나비어울림센터 운영 시간은 주중 오전 9시~오후 8시, 토요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휴관일은 일요일이다.

특히 나비어울림센터는 동아리방 2개, 밴드실, 공유부엌, 영상감상실, 전시홍보실 등 다양한 공유공간을 갖추고 있다.

공유공간은 주민 누구나 필요할 때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함평군 도시재생지원센터(061-320-1593~4)로 문의하거나 메일(karenyu@korea.kr)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

LOCAL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구례, 저탄소 농업 확산 '앞장'
벼·감자·배 등 148ha 인증지원

구례군이 탄소중립 흙 살리기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흙 살리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저탄소 친환경 농업 확산에 나선다.

23일 구례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격요건을 갖춘 벼, 감자, 배 등 3개 작물 148ha에 대해 저탄소 인증지원 사업 신청을 마쳤다.

군은 사업 선정 대상자에게 인증취득 관련 절차, 인증심사비 지원 등 저탄소 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저탄소 식량작물 재배기술 현장확산 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유기농 벼 재배단지 45ha에 논물관리, 컨설팅 등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저탄소 재배면적 확대 및 농산물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저탄소 농업은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구례군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며 "농업인들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해 친환경 농업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례=전창제 기자 dong-eah@

곡성, '시군구연고산업' 육성
내달 18일까지 대상자 모집

곡성군은 지역 내 업체들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의 대상자를 다음달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인구소멸지역 내의 업체들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으로 곡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 1개 이상 소재)에 시제품 제작, 브랜드&디자인 개발, 국내외 판로확보 지원, 홍보마케팅 지원, 외국인 인력 채용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기능성 효능 평가 지원 등의 사업을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안내를 위해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시청각실(곡성읍 읍내14길 3 나동 1층)에서 곡성에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업 소개, 신청 방법 안내 및 질의응답과 현장 상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은 기업지원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곡성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공고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승홍 기자 photo25@